



# 무슬림 사랑하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29)

## 사랑하고 보고픈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길 기도합니다. 2012년은 주님께 깊이 배우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길 기도하며 한해를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중반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늘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섬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을 드리길 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아내와 함께 중동의 팀을 방문하고 코칭하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한주간의 코칭을 통하여 팀들과 시간을 보내고 격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한 지역에서 철수하여 인근 나라 A 도시에서 언어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팀들과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 코칭을 위하여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나라를 가지 못하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살아야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부관계, 의사소통, 팀사역, 언어습득, 문화적 충격, BAM(Business as Mission)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코칭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존재는 자매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늘 ‘한국인이기를 포기하라’고 말했던 대표가 한아름 한국음식을 들고 나타나서 조금 놀랐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김치 통을 어떻게 숨기나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 나누었다는 이야길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어떻게 수십년동안 먹어오던 음식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과 함께 무슬림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좀 외롭지만 B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팀 리더 가정과의 교제를 통해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돌파를 경험하고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현재 양육하는 무슬림 회심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6명까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 2. 한국본부를 섬겨가는데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2월에 한주간 동안 “인카운터 이슬람 인텐시브” 코스가 진행 되었습니다. 3월31일부터 정규 인카운터 이슬람코스가 12주 동안 화요 반과 토요 반이 시작되고 4월2일부터는 8명의 선교사 후보생들과 3개월간의 장기 선교사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교사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바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두가정을 순조

롭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3명의 간사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신학생들과 함께 이슬람 선교를 주제로 한달에 한번씩 동원을 목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지역교회 선교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대학부와 만나야 되는 도전도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이슬람특강을 통하여 이슬람 선교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씨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를 무슬림 미접촉 종족 가운데 보낼수 있기를 기대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7년동안 여러 사역들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선교자원이 예전과 같이 많다는 이야길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찾는 것은 저희의 사역이라고 믿기에 이들을 만날 수있는 창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프론티어스 코리아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두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3.저희가정을 향한 변함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진이와 상훈이도 점차 안정을 찾고 미국생활과 학업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자주 보지못하는 아쉬움을 전화와 스카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장을 자제하고 사역과 동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PSP와 지역교회 강의가 많은데 잘 동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시작되는 신학교강의도 무슬림 선교를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변함없이 기도회 인도, 사무실 사역과 멘토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조국에서  
이현수, 진, 수진, 상훈 드림